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0-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워크숍 예약 신청

2020년 12월의 워크숍과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 프리비엔날레는, 본 전시《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에 앞서 좀 더 가볍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주제를 조망하며 문자와 생명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다양한 연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래의 개별 워크숍 상세 페이지 링크에서 자세한 워크숍 진행 내용과 강연자 정보를 확인하신 후 예약 신청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두 개 이상의 워크숍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결과물은《타이포잔치 2021》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되며 기재해주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방역정책에 따라 워크숍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 1. 이정호

2020년 12월 14, 15일

생명을 얻은 글자—Life.js

워크숍 2. 저스트 프로젝트

2020년 12월 18, 19일

재생再生하는 글자—나의 얼굴, 나의 쓸모

워크숍 3. 오혜진

2020년 12월 21, 22일

변이變異된 글자—돌연변이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참가비: 무료

문의: typojanchi.2021@gmail.com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협력기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전시 《만질 수 없는》오프라인 관람 신청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열네 번째 전시《만질 수 없는》이 워크숍 기간 동안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열립니다. 전시《만질 수 없는》은 학회원을 포함한 123명의 전시 참여자가 ‘만질 수 없는’을 주제로 디자인한 서로 다른 4페이지를 웹사이트 상의 4개의 각기 다른 방에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4개의 방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워크숍 공간에 프로젝션해 여전히 ‘만질 수 없는’ 전시를 선보입니다.

워크숍과 전시《만질 수 없는》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아 각각의 주제를 탐색하고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전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시간당 최대 1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전시

2020년 12월 16, 17, 20일

만질 수 없는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참가비: 무료

문의: info@koreantypography.org

주최·주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협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조직위원회,
CAVA LIFE, CA BOOKS, 삼원페이퍼